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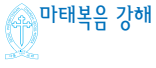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한 여인의 소박한 믿음 (마 15:21-28)

A Woman of The Naive Faith (Matt. 15:21-28)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벗어나 가나안 이방 땅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생하고 있는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시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며 마치 인격 모독을 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딱 한 번 유대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어 사역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세계를 향해 전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의미로 신학적으로 대단한 부분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text indicates that Jesus left Judea, withdrew to Canaanite, and started his work. Jesus refused to help a mother whose daughter suffered terribly from demon-possession and he insulted her character,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to the dogs."

While doing the work on the earth, Jesus left Judea and withdrew to the region of Tyre and Sidon., and did his work, which is in this text. The text is very important part in theology which indicates the starting point in which the Gospel passed over Israel and spread to the world.

1.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제목

귀신들린 딸의 어머니는 딸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는지 예수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소리지르는 저 여인을 좀 도와주시지요"라고 청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급기야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제발 도와 달라며 사정사정합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주님의 냉정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이다" 예수님은 대놓고 그 여인을 개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옹송굽니다. 저는 개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은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 앞에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머니이기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라도 개처럼 주워먹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냉담한 반응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그녀가 사람들의 무관심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존심에 상처가 날 때 그 또한 극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 여인은 그저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 은혜만으로도 자기의 소원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가나안 여인은 부스레기 은혜만으로도 족하게 여기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녀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견고한 신앙과 결코 딸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심정, 그리고 무관심과 거절 당함과 상처 입은 자존심을 잘 극복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예수님께 칭찬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시므로 하나님의 칭찬과 응답을 받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The earnest praying title of a woman

Because the mother whose daughter suffered terribly from demon-possession was very eager to heal her, she cried out in a loud voice, his disciples urged Him, "Help the woman who cried out."

Yet, at last the woman came and knelt before him, and urged him to heal her daughter. But they heard Jesus' unbelievable cold-hearted word. "It is not right to tak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dogs." Jesus directly compared her with dogs.

Although she heard Jesus' insult about her character, she answered, "Yes, Lord, I am a dog." She knew that she was a sinner and an alien, and deserved not to come before Jesus who is holy. Nevertheless, she said, as a mother of a child, "Even the dogs eat the crumbs that fall from their master's table."

2. The cold-hearted response of Jesus Ch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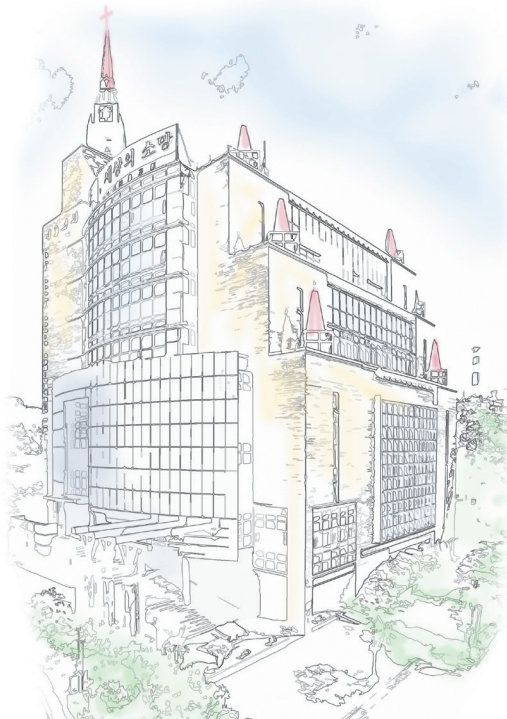
The reason why Jesus showed the Canaanite woman a cold-hearted response was that he let her experience the dread of people's indifference and refusal. Moreover, he wanted to let her overcome the time when she was insulted on her character.

The Canaanite woman believed that Jesus should heal her daughter. Her belief was so strong that she did not doubt that she should get the grace of crumbs that fall from owner's table and she should get the response of her hope.

My beloved Christians,

She was a poor woman whose name was not known to anyone and was satisfied with the crumbs of her owner's table. And there, Jesus made her to be gratified with the most beautiful thing she desired. Owing to the mind of mother who never gave up her daughter with her strong faith, and had the belief that overcame her injured pride of indifference and refusal, she received the compliment and response from Jesus.

Just like a Canaanite woman, by overcoming all obstacles, coming before Jesus with faith, and praying earnestly,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Jesus' blessed people receiving God's compliment and respons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웃과 함께하는 2014 사랑의 바자

교구설명회 : 오늘 오후 2시 202호 / 바자 : 9월 25일(목)~26(금)

우리 교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2014 사랑의 바자 (위원장 : 서문석 장로)가 9월 25일(목)~26일(금) 양일간 서울교회에서 열린다. 2014 사랑의 바자는 "이웃과 함께하는 2014 사랑의 바자"를 표어로 1) 불우 이웃 및 탈북난민돕기 2) 생명의 우물파기(동남아 및 아프리카) 3) 살리랏 후원 및 중앙아시아 선교를 목표표한다. 또한 바자시작 전부터 진행되는 사랑나눔

A+캠페인과 자선바자음악회를 중심으로 9월 한 달간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로 바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릴수있기를 기도한다.

오늘 (27일) 교구설명회를 오후 2시, 202호에서 갖는다. 각 교구의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들은 필히 참석 바란다.



2014년 3분기 섬김위원 추가임명

찬양위원회

- 가브리엘 : 박은주3 이도경 전영도
- 할렐루야 : 박영신2 박혜경1 양수미 이정미
- 임마누엘 : 김민철2 김양희2 맹주는 소훈 이영자1 장태준 최상아
- 베들레헴 : 김철수
- 예루살렘 : 김성미2 박수련 신혜식
- 호 산 나 : 박진선2 신민정2 이혜경8 장지애1
- 시 온 : 강재훈 송미라
- 아멘관현악단 : 김광일1 박은송 임정빈
- 갈 렵 : 김숙연 최순례2

교육위원회

- 영아부 : 안재희
- 중등부 : 소훈 이영주6 최미진1

교구위원회

- 2-3 다락방장 : 이갑연 부다락방장 : 조미환
- 3-11부다락방장 : 김수원
- 4-11다락방장 : 곽태수 부다락방장 : 권수정
- 15-5다락방장 : 김경희14 부다락방장 : 문정원

설교사역도고부

강희자 김명숙 김미숙 김옥순 김희진 육옥진

금주의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초등부 : 7월 30일(수)~31일(목) / 아가페타운
고등부 : 7월 31일(목)~8월 2일(토) / 아가페타운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7/25(금)~27(주일)	서울교회	예수님의 사랑, 온세상의 광풍!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사랑 나눔 미션을 수행하라	양세라 목사
유년부			나는 믿음의 사람,인내의 사람!	김안성 목사
초등부	7/30(수)~31(목)	아가페타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최민혁 전도사
고등부	7/31(목)~8/2(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를 본받아	박노철 목사 / 천세중 목사
청년부	8/12(화)~8/16(토)	경기도 광주	새로운 도전,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박노철 목사 / 서준권 목사
청년2부				장재원 전도사 / 정대는 전도사

2014년 2학기 장학생 선발

오리엔테이션: 8월 3일(주) 오후 4시 / 장학금 수여식: 8월 3일(주) 찬양예배 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4년 2학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였다. 8월 3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에 장학금을 받을 본인명의로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여식에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53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 자라나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송암장학생(대학부)

권보화 김성은 김세준 김재은 박선영 박소혜 박연경 박정범 배상은 신도빈 오상협 이다솜 이상휴 이성화 이소현 이혜진 임이랑 장지윤 전미정 제연주 최서원 최선진 최현진
홍남명 (24명)

고등부

강예선 김은호 남유라 박동아 이선민 정하은 (6명)

디아스포라부

권영숙 김혜경 박효진 이명학 정윤희 조영금 최아라 최현화 홍지아 (9명)

교역자 선교사 자녀

김노수 김예나 김예림 김하은 우하은 이준행 이평화 정에스터 조라빈 조라혜 형신혜 (11명)

호산나장애인전문대학

노다는 류근휘 이종석 (3명)
총 : 53명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38)

(문 138) 아가서와 같은 책을 어떻게 정경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아가서가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아주 다른 분위기를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주제가 교리적이라기보다는 내면적 느낌이며 그것도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자녀에 대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된 신부인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받은 백성사이의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결혼의 신비함과 성격을 언급했습니다. 이사야 54:4-6에서 하나님이 남편으로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에베소서 5: 21-27에서는 아내 된 자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본서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노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아가서를, 중년기에 잠언을, 그리고 노년기에 전도서로 기록하였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오랜 전승이었습니다.

구약 정경사에서 본서는 전도서와 함께 가장 늦게 정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은 너무 뜨거워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끼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8:7)고 했습니다.

본서는 논리적이거나 연대기적 순서를 갖지 않았으나 감정적 흐름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4:1-5과 7:1-9과 같은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육체미를 묘사한 것이나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의 영적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본서의 해석에 따라 본서를 보는 입장이 다를 것입니다. 신비하고 비유적 언어가 많이 있다 해서 우화적 해석법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품의 문학성을 높이 평가해서 사랑의 시 또는 연애의 노래라는 자연주의적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극단적 두 견해에서 역사적 문학적 바탕을 버리지 않으면서 외부로 나타난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다른 책들과 비교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의 위치를 찾고 자연적이고 지역적 사실에 영적인 상징을 붙여넣는 상징주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문자적 해석을 강조하여 솔로몬을 그리스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성경이 주는 영적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이제는 변해야 산다



다음은 지난 5월 26일 출범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7월 25일(금)에 충무아트홀에서 2014 전국결의대회에서 정식으로 창립한 내용으로 기독교계 대표로 참석한 서울교회 이종운 원로목사(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의식개혁위원회)의 인사말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2014년 전국결의대회가 지난 7월 25일(금)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대한민국이 '물질 만능과 성장 일변도에서 공동체주의, 정신주의, 삶의 질을 존중하는 신뢰와 도덕의 사회로 전환 해야 한다'는 기치 아래 5월 26일 프레스 센터에서 종교계, 법조계, 교육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 500여명이 모여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전국대회에서 의식개혁위원회 상임대표이면서 기독교 대표로 참석한 우리교회 이종운 원로목사님은 인사말을 통하여 "국가를 개조하고자 할 때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의식개혁운동이다. 이 운동은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의식개혁운동은 정직, 질서, 나눔, 근검절약, 환경보존등의 새로운 가치관을 국민의식 속에 뿌리 내리게 하는 정신개혁운동이다. 구체적으로는 법과 질서지키기 운동, 나눔 운동, 정직 운동,

“
의식개혁운동은
정직, 질서, 나눔, 근검절약, 환경보존등의
새로운 가치관을
국민의식 속에 뿌리 내리게 하는
정신개혁운동이다
”

근검절약 및 환경보존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되 학교와 교회, 성당과 사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앞장서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개혁위원회는 앞으로 '법과 질서지키기 운동본부', '나눔운동본부', '정직운동본부', '절제 및 환경보존 운동본부'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의식개혁운동은 새로운 한국 건설을 위한 희망의 선포요, 통일조국의 디딤돌이며, 선악 간에 심판의 나팔소리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날 전국대회에서는 국민운동 임원명단과 회칙을 발표하고 '관피아와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회는 김영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제창한다',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한 경제국민운동을 제창한다', '교

육의 좌초를 막기 위한 공동정책협의를 제안한다', '역사학계는 좌우파간의 역사전쟁을 중단하고 실증적인 사료에 기초한 한국현대사 공동집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는 '세월호 사건의 충격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말 바뀌어야 산다는 국민적 열망 가운데 출범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사회지도층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대중운동이 되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또 세월호 문제에만 집착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기필코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절대로 약해지면 안된다'고 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세월호가 남긴 깊은 상처를 국민 모두가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한층 더 성숙해지며 그러므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사진 : 이준데 집사



문현 (고등부 회장)

무더운 더위 속에 우리 성도님들 잠 설치지 않으시고, 잘 이겨나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올해도 어김없이 뜨거운 계절,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여름도 각 부서마다 여름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시네요. 날이 더운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뜨거워지는 여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학생부 수련회 추억들은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신나는 학생부 수련회!! 드디어 여름수련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고등

부입니다. 와우~! 은혜 충만한 아가페타운으로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말씀: 빌립보서 2장 5-11절)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세대 주역인 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를 만들고 서울교회에 기동같이 쓰임받도록 하는 수련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들, 많은 교회들이 이시대의 도전 앞에 점점 무력해 지고 있으며, 성도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도전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고 자신을 남김 없이 불태웠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

아가셨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믿음으로 뚫고 부흥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세대는 바로 우리 고등부입니다. 부흥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손을 잡고 부르짖는 이번 여름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2014년 고등부 여름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 입니다.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변 우리 여름수련회에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여러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4 여름수련회 - 초등부

애들아, 다 합내~



김은빈
(초등부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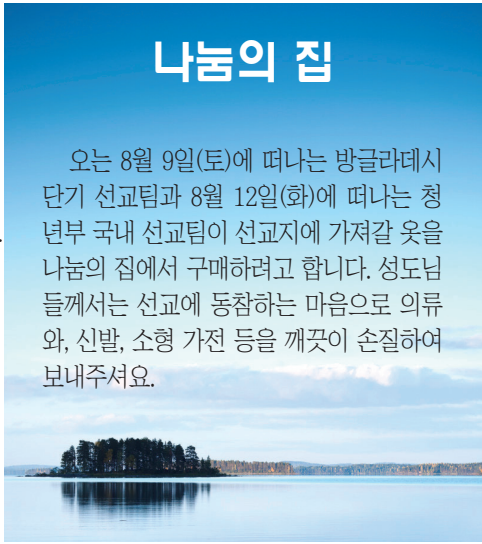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2일로 아가페타운에서 초등부 수련회가 열린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애들아, 다 합내!"입니다. 친구들과 모두 같이 가서 힘들 때 위로해 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예배와 성경공부, 공동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제 활동을 위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미션을 함께 풀어가며 서로 친해지고 하나 되는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집

오는 8월 9일(토)에 떠나는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팀과 8월 12일(화)에 떠나는 청년부 국내 선교팀이 선교지에 가져갈 옷을 나눔의 집에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의류와, 신발, 소형 가전 등을 깨끗이 손질하여 보내주세요.



등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8월 1일(금) 북한인권한국교회 연합 통곡기도회 대구서현교회에서 설교한다. 8월 2일(토) 사랑의 쌀 운동 조찬기도회, 울란바타르대학이 사회 개회설교를 한다.

■ 교역자 휴가: 황광 목사(7.29) 대행 서명철 목사 유문건 목사(7.28-8.4) 대행 박영준 목사 조원영 목사(7.29-8.1) 대행 황광 목사

■ 주일식당봉사 : 베드로선교회 에스더전도회(7.27) 바울선교회 마리아전도회(8.3)

■ 금주의 식사 제공 : 한중우 집사 황도전 권사 가정(자녀 결혼 감사드리며)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이번주에 계속 되는 초등부 수련회(수/목)와 고등부 수련회(목~토)가 큰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2. 방학을 맞이한 우리교회 다음세대들이 영적으로 또한 교육적으로 알찬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3. 이종운 원로 목사님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합차게 진행되어 국민의식의 개혁을 이루도록

선교보고 - 인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전도의 역사가!

저는 매일 기도해 주시는 인도도고 기도팀의 뜨거운 기도를 기억하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교회의 정성어린 사랑과 후원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1. 본교단 복인도선교사회 총회

본교단 복인도선교사회 총회가 제가 사역하는 UBS 신학대학에서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있었습니다. 날씨가 40도가 넘는 날이었지만 9명의 선교사가 참여하여 회의와 사역을 나누었고 총회를 통해 저는 총무로 다시 선임되었습니다.

2. 뿌네 UBS 신학대학교 개학

UBS 신학대학이 지난 6월 9일에 개강을 하였습니다. 석사 과정 대학원생 42명이 공부하고 신대원생은 약 220명이 공부하는 신학교로서 인도에서 가장 이름난 명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본 신학교에서 선교학과 학과장으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3. 차티스가르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개학 및 중부인도 교회개척사역

총회선교부의 부탁으로 중부인도에 세워진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개학하여 현재 약 80명의 신학생들이 공부하

고 있으며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교회개척을 돕고 있습니다.

4. 나가랜드 태버너클 신학교 개학 및 북동부 인도 교회개척사역

인도의 인드라지 목사가 인도의 북동부 지역에 태버너클 신학교를 설립하고 여러 도움을 요청하여 신학생들을 격려하고 1주간 강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30명의 신학생들을 모집하여 열심히 가르치며 훈련하는 중입니다.

5. 기도제목

(1)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1월에 심한 열병을 앓았는데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2) 가르치는 사역과 교회개척 사역을 함께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고 어느 목회자를 선별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세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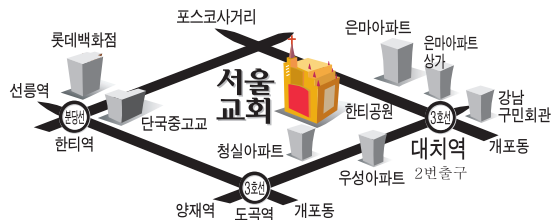
조범연 선교사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